

충남도, 새로운 도약 위한 2020프로젝트 추진

-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전문가와 워크숍 가져



충남도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도약하기 위한 2020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공동으로 10월 8일(목) 오후 2시 충발연에서 워크숍을 갖고, 충남 발전의 중장기적 프로젝트 마련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의 미래를 개척하고 기 연구되었던 분야별 2020 중점 추진 프로젝트 재분석은 물론 추가적인 핵심 과제 발굴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총괄 부문, 농업·농촌, 투자통상, 지역산업경제, 문화관광, 도시지역개발, 환경, 복지, 행재정 등 9개 분야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 충발연 연구진 및 도청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 이인화 행정부지사는 “충남의 미래도약과 번영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실행력을 갖춘 프

로젝트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충남 2020 비전과 전략의 총괄 부문에 대해 발표한 한남대 정순오 교수는 “충남은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반면, 독자적 비즈니스 도시의 부재 및 전통적 농업 지역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며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지방자치 실현 등 국제적 트렌드 속에서 충남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 중 충남과 직접적 관련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초광역경제권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를 발표한 공주대학교 정환영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구해 왔으나, 산술적·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으로의 연계에는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충남도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북부권과 금강주변 시·군의 발전 격차를 보이는 등 이러한 도내 시군별·권역별 불균형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지역불균형 성장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켜 지역의 자생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남도는 지역 내 지역불균형 성장을 고려하여 지역간 성장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충남의 도시 및 지역발전 추진전략으로 ▲광역권 거버넌스체계 구축 ▲금강 살리기 사업 연합도시권 개발 ▲지역개발과 문화재보전이 연계된 고도보존정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화 전략 ▲한민족문화허브 설립 도시재생 및

구도심 활성화 ▲명품도시 건설” 등을 중심축으로 제안했다.

문화관광분야를 발표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향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관광시장은 2010년 10억명, 2020년 16억명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특히 동북아관광시장의 관광객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내관광시장은 2008년 기준 관광경쟁력 부문에서 71위를 차지하여 관광 인프라 부족과 관광산업구조의 영세성을 드러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세계133개국 중 114위로 관광을 생산적 생활문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충남은 상대적으로 축제 및 관광자원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문화자원이나 문화시설, 관광유인력 등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라고 지적하면서 “충남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대중국 문화관광의 교두보 역할로 자리잡기 위한 정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2010년 국제교류 및 투자통상활동 계획 발표

- 자원외교활동강화, 투자 15억달러, 수출420억달러 목표 제시

지난 7월 투자통상실을 경제산업국과 분리한 바 있는 충남도가 2010년도에도 경제1등을 유지하기 위한 바쁜 잔걸음을 시작했다.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발한 FTA 체결이 이뤄지는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와 수출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0년 국제교류 및 투자통상 활동계획을 수립, 발표한 것이다.

발표된 충남도의 계획을 보면李志사 공약사항인 “외자유치 50억달러”를 재임 잔여기간 1년을 앞둔 지난 9월에 조기 달성한 가운데 2010년 외자유치 목표를 금년 유치 계획인 12억달러보다 25%가 늘어난 15억달러로 정하였다.

또한 충남도 수출역시 금년 350억달러의 20%가 늘어난 420억달러로 목표를 정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과 적극적인 수출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9월에 개최되는 “세계대백제전”에 20여 해외교류자치단체를 초청하고, 한-EU FTA체결에 따른 유럽과의 교류협력 강화, 자원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 교류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구체적인 충남도의 활동계획을 보면 러시아와의 교류협력 10주년 행사 등 유럽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동석유 자본유치를 위한 중동과의 교류, 미래자원의 보고인 남미지역과의 교류확대, 세계대백제전 홍보를 위한 일본 홋카이도 방문에 이어 중국 개방의 진원지인 광둥성과 동북 물류중심지 랴오닝성 등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국제교류 활동 계획과 석유자본, 관광서비스, 영상, 녹색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미국, 사우디, 영국 등 세계 우수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한 7회의 해외출장 계획 등을 함께 발표했다.

한편 2010년 충남도의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과 도 수출 주종품목인 반도체, LCD의 수출 회복세 등을 감안, 금년보다 20%증가한 420억달러를 목표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12회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세계 유명박람회에 스무차례 이상 참가하는 등의 수출지원시책을 추진하며 특히 2008년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단독 개최한 충남 우수상품전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충남 상품의 수출 종합전시회로 정착시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2010년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확정

- 도내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22지구 820억원 투자

충남도가 내년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오는 2010년도에 도내 낙후지역 총 22지구에 8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10년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은 기 수립한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매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행계획이며, 3개 분야별 사업내역으로는 ▲문화관광분야는 공주시 문화관광지 조성 74억원 등 10지구 542억원 ▲기반시설 확충분야는 국방대학교 이전지원 18억7천5백만원 등 3지구 43억5천만원 ▲지역특화분야는 금산군 인삼명품화사업 17억4천만원 등 9지구 234억2천8백만원을 투자한다. 시군별로 보면 ▲공주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74억원 1지구 ▲보령시 舊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 90억원 1지구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테마공원 조성 40억원 등 3지구 금산군 인삼약초건강체험장 조성사업 47억1천2백만원 등 8지구 ▲부여군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80억원 등 2지구 ▲서천군 장항선 폐선활용 관광진흥사업 74억원 등 2지구 청양군 운곡 2농공단지 조성 50억원 등 3지구 ▲태안군 백사장항 해양관광 자원개발 74억원 등 2지구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266억원 도비 272억원 시군비, 기타 등 281억7천8백만원 등 총 819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올해 842억3천3백만원을 투자한데 이어 내년엔 819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2012년까지 낙후된 서남부지역을 집중 지원, 도내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30일(금) 오후 4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52개 사업지구 4,997억원을 투자하는 충청남도 균형발전개발계획 변경계획과 오는 2010년도에 82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은 서북부권 중심의 산업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권의 성장동력사업 지원으로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주·보령·논산시·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 등 낙후지역 8개 시군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충남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

- '15년까지 5천8백억원 투입,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로 확대

충남도가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0.2%에서 1%로 높이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보급확대 ▲산업육성 부문에 5천8백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 주요전략으로 도내 대학·연구소·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우수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과 지원센터 설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그린홈 1만2천호 ▲농·산·어촌형 에너지자립마을 26개소 축산바이오가스발전소 5기 우드펠릿 생산시설 5기 ▲시설농가 지열시스템 66개소 ▲소수력발전소 3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해 ▲RDF(쓰레기 추출 고형연료) 생산·이용설비 4개소 하수슬러지 연료화 3개소 ▲LFG(매립가스) 이용 발전설비 2개소 ▲소각여열 회수 및 이용시설 4개소를 건설한다. 아울러, '12년까지 태안군 이원·원북 일원에 ▲16MW급 태양광발전소 ▲100M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등의 종합에너지특구를 조성하며, 바이오가스, 우드칩, 지열,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설비 5개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12년 새롭게 출발하는 도청 이전 신도시를 공공청사와 주택, 학교 등에 총 10.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등 신도시 및 택지개발 지구도 전략적 녹색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반도체 산업기반을 이용한 태양광소재와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태양전지 제조장비 국산화를 위해 '14년까지 440여억원을 투입하여 태양전지 클러스터를 중점 육성하며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에 구축된 지열관련 인프라 및 풍부한 잠재량 보유 강점을 살려 실증연구 및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열산업을 특화하고 보급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통하여 수립하였으며, “연간 40만TOE의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2억3천만달러의 원유수입과 1백2십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실현에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충남발전연구과 의정발전 세미나 개최

- 22일, 행자위 등 4개 상임위의 기능 강화와 의정 방향 모색



충청남도의회(의장 강태봉)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함께 10월 22일(목) 오전9시부터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의정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충남도의회 의정연찬회에 충남발전연구원을 초청, 각 상임위의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제주올레 서명숙 대표를 초청하여 제주올레길의 성공 사례를 통해 본 “생태관광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 별 전문가 주 제발표와 충남발 연 연구진과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행자위에서는 공주영상대학 양광호 교수의 “2010 대충청방문의 해와 충남관광 활성화”로, 교사 위는 순천향대학교 허선 교수의 “충남 저소득층복지의 실태와 발전방향”으로, 농경위는 (주)말뚝이 TnC 김수남 대표의 “농업 및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로, 건소위는 공주대학교 김경석 교수의 “금강살리기사업과 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충남도의회 강태봉 의장은 “우리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의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연구기관, 민간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도정 발전을 위해 쓸모있게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 2009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은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이사진과 김용웅 원장을 비롯한 간부 및 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직제규정 개정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주요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도 총 예산은 69억1,00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2,200만원이 증가될 예정이다. 이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경상비를 절감하는 대신 민선5기 연구수요 증가에 대비한 연구사업비 확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연구직 정원 3명을 증원하여 급변하는 도정현안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고 부족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도 충남은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한해였다.”고 자평하면서 “우리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뉴딜정책 등 다양한 국책사업과 연계한 실효성있는 발전계획을 수행함은 물론, 세종시 문제, 도청신도시 건설, 광역경제권 구축, 수도권규제 완화 등 산적한 도정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금강살리기 대토론회

- 금강 포구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금강권역의 공동 발전과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로 ‘금강권역발전협의회’ (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금강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금강살리기 사업의 특화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금강발전연구원’ (가칭)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금강의 뱃길을 역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대별 강모습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포구문화(浦口文化)’라는 관점에서 백제 고도 등의 소도읍 재생을 위한 자원으로 포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대전일보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여 12월 4일 대전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차 금강살리기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는 정부 금강살리기 사업의 본격 추진과 연계해 금강권역의 파급효과 제고 및 금강 뱃길의 역사자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에는 신수용 대전일보사 사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박성호 대전시장, 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장, 유한식 연기군수, 이장우 동구청장 등 각계인사와 시·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와 토론에선 현 단계 금강살리기 사업의 쟁점에 대한 논의와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폭넓게 개진됐다.

김태명 한남대 교수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지역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발전전략’에서 금강권역발전협의회 구성과 금강발전연구원 설립 방안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금강권역 공동 발전과 금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선 시·군 협의기구와 연구원 설립이 요구된다”며 “금강권역을 전체로 묶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금강권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맞춤형 테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석민 충남역사박물관장은 ‘금강의 뱃길과 역사자원 현황 및 활용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포구는 과거 정치경제적 거점이고 문화재가 곳곳에 분포된 중요지역으로서 금강 뱃길 역사자원 개발은 ‘포구문화(浦口文化)’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백제 고도와 기호 유

교문화 자원, 곰사당과 용당진사 등 국가의례 자원 등을 활용해 관광자원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재근 대전일보사 60년사 편찬위원,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양광호 공주영상대 교수, 정환영 공주대 교수, 한상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금강살리기 사업의 개선 방안을 집중 제기했다.

신수용 사장은 개회사에서 “충청인에게는 ‘금강’이라는 가슴 설레는 단어가 있고 금강은 충청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도도한 물길”이라며 “찬반 논란이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이 충청 정신과 충청의 역사문화가 투영되는, 바람직한 모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권도엽 차관은 축사에서 “이처럼 의미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 신수용 사장님과 대전일보사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각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2009-12-05 1면]

충청 혼 담긴 명품 新도시로

- 대전일보 · 충남발전협 · 홍성 · 예산군 주최 '도청신도시 조성 심포지엄'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으로 홍성과 예산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구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선 신도시와 구도심을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신성장거점 연계형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신도시와 도청소재지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전일보 창간 60주년을 기념해 12월 16일 홍성 홍주문화회관과 예산문예회관에서 열린 '충남도와 홍성·예산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도청 신도시 조성 심포지엄'에선 홍성군과 예산군의 공동화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대전일보사와 충남발전협의회,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심포지엄에는 신수용 대전일보 사장, 이완수 홍성군수 권한대행, 최승우 예산군수, 고남중 충남도의회 도청이전특위 위원장, 이은태·김기영·오배근 충남도의원, 이규용 홍성군의회 의장과 신영균 예산군의회 부의장 등 홍성·예산군의회 의원, 정운영 충남발전협의회 수석부회장, 김용찬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 홍성 및 예산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도청 신도시의 미래 비전'과 '해외 신도시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 예산문예회관에서는 '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및 추진 전략'과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

회로 각계 전문가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오용준 책임연구원과 문지영 연구원은 “홍성과 예산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신-구 도시의 공동협력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신도시는 행정, 연구개발 등 도시 성장 및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고 구도심은 서민경제 및 문화·역사, 위락·관광 부문을 육성하는 등 신-구 도시의 기능적 재편 방안을 제시했다.

박현주 카이스트 건축·환경공학과 교수는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생태계적 환경에너지 도시, 고유의 전통문화를 기초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다문화 중심의 창조도시, 인구의 고령화 등을 고려한 무계단 저층고밀도시, 여성 편의 위주의 도시 공간구조 등을 제안했다.

김영환 청주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첨단산업 및 해외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자족 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신도시와 도청소재지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신수용 사장은 개회사에서 “도청 신도시가 금강과 백제 등 충청의 역사·문화는 물론 충청과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충청정신이 투영되고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명품 신도시로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창간 60주년을 맞는 대전일보사는 충청정신을 계승해 지역 권익 향상과 충청인의 이익 확대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찬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은 이인화 충남지사를 대신해 환영사에서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수용 대전일보 사장님 등 각 기관, 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청 신도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완수 홍성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성공적인 녹색 명품도시의 비전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최승우 예산군수는 “구도심권 쇠퇴와 공동화 방지를 위한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2009-12-17]

2009년 「대한민국 인재상」 지역심사 개최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는 '2009 대한민국 인재상' 충남지역 후보자 추천을 위해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평가회 진행하였다.

이 상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있다.

충남도는 9월 10일까지 접수된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9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등학생 6명, 대학생 6명 등 모두 12명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였으며, 9월 30일 치러진 실사면접을 통해 고등학생부문 김도연(충남과학고), 김선오(충남외국어고), 양진모(서야고), 대학생부문 김민재(신성대), 안상일·오연옥(순천향대) 학생(총 6명)이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수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상식에 부모 및 스승과 함께 초대받아 상장과 메달, 장학금 300만원을 받게 되며, '글로벌 인재포럼 2009', '크리스마스 과학콘서트' 등 별도의 연수 기회도 갖게 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3차 「충남 고용포럼」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는 11월 11일(수)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노동청, (사)충남벤처협회와 합동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3차 충남고용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체 및 학계, 연구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개 기관, 3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충남 중소·벤처기업의 인력수요에 따른 인적자원 개발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채용 Trend패턴과 대학의 대응전략(주)엔잡 서춘현 대표)’, ‘충남산업인력 Mismatch 해결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과제(임명재 충남발전연구원 전임책임연구원)’라는 주제연구 발표가 있었다. 또한 ‘충청남도 디스플레이분야 여성인력양성(배선화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과 ‘녹색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창출방안(최연택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발표와 패널토론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충청남도의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문제를 기업과 대학의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뜻 깊은 자리였다.

금강 살리기, 지역간 갈등 43.6%로 가장 높아

- 14일 충남발연 세미나에서 갈등중재와 조정기관 필요성 제기



금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지역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갈등 중재·조정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10월 14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이하 ‘충남포럼’)이 금강살리기범도민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예상되는 갈등실태와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병학 충남포럼 운영위원장(충발연 연구위원)은 “현재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강권역 7개 시·군간 중복 및 과다 사업, 편입농지 보상, 환경과피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예견되거나, 이미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금강권역 7개 시·군민 750명을 대상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9%인 241명은 금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답했고, 금강 살리기 사업

에 따른 예상되는 갈등의 범위는 ‘지역간 갈등’이 가장 크다며 총43.6%인 300명이 응답했다. 또한, 갈등해결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17명인 31.3%가 ‘중앙정부’라고, 갈등중재 및 조정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9.1%인 338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단계적,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영향분석의 정례화를 통해 갈등에 대한 사후 조정보다는 사전 예방과 합의에 중점을 뒀야 한다.”면서 “「갈등순회 매니저제도」등 민-관-산-학-연-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되, 현장 위주의 자문과 아이디어 제공 등 보다 실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권형준 박사는 “금강 살리기 사업 내용 중 자전거길 및 수상레포츠 시설 조성, 접근성을 높인 활력있는 수변 공간 과 둔치 개발을 통한 도심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 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하면서 “충남 폐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토양오염 및 수생태 보전사업을 병행하고, 금강 주변 지역에 가축분뇨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거나 대전-공주, 공주-부여, 대전-연기 등 대도시권과 연계한 금강변에 명품 빌리지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세미나에는 공주시의회 김태룡 의장, 공주녹색연합 김택진 사무국장, 건양대 이윤환 교수, 단국대 오열근 교수, 충청남도 남광현 금강살리기사업팀장 등이 참석하여 금강 살리기 사업의 상생협력과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충남포럼에서는 지난 11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논문발표자, 지도교수 및 학부모, 각 학교 응원단, 포럼 관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논문대회는 11월 9일(월)~19일(목)까지 총 13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11월 23일(월) 1차심사를 거쳐 대학원생 부문 4편, 대학생 부문 4편 등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2차 심사를 거쳐 시상식이 거행되었으며,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세종시 건설의 정책비일관성과 딜레마”에 대한 연구를 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경태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학생 부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공주시·부여군 중심으로”의 연구를 공동연구한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강서영, 이동현, 이슬기, 이용일, 임현수 팀에게 최우수상이 돌아갔다.

대학원생 부문과 대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최우수상 1팀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1팀에게는 충남발전연구원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 2팀에게는 충남포럼상임공동대표상과 상금 30만원 등 총 42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

충남포럼이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충청남도가 후원한 이번 논문대회는 논문의 완성도, 내용전달의 명확성 등을 평가하였고, 충청남도의 갈등현안에 대한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제안된 연구결과는 충남도정의 주요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대상 공공디자인 순회교육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에서 주관한 2009년도 시·군 공공디자인 교육이 10월 1일부터 11월 4일 약 한 달여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공공디자인 교육은 16개 지자체중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등 8개 지자체가 참가하였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첫 실시된 순회교육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에 참석한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과 자치 단체장들에게 공공디자인의 중요성과, 특히 우리 지역이외 국내·외의 선진지역 사례를 통해서 충청남도가 가야할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 알림으로써 디자인의 사회적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데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1회 이상의 지자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